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3월 21일(금)
...(음력 2월 22일)...
Пятница
21 марта 2025 г.
№ 11 (12128)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7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 '스톨리차'사업센터의 콩그레스홀에서 2025년 전문기술 선수권대회 '전문가' 지역 부문과 하이테크선수권대회의 수상자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전문가'전문기술선수권대회는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이에 400여 명의 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우승자와 수상자들에게 메달과 상장으로 시상하고, 우수 수상자들은 연방 최종단계경연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예식 기자의 글과 사진)

사할린주, 대조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8만 루블리 지급

사할린주 정부회의에서 사회적 지원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대조국전쟁 승전 8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과 '전쟁의 아이들'에게 일시지급금 인상 결정을 채택했다.
현재 사할린과 쿠릴열도에는 대조국전쟁 참전용사 247명과 '전쟁의 아이들(어린시절 전쟁을 겪은 사람들)' 1만 1,950명이 살고 있다. 매해 전승일에 사할린주에서는 이들에게 일시지급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올해는 주지사의 결정으로 인상된 일시지급금을 수여한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올해 우리는 승전 80주년을 기념한다. 이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는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바쳐 우리의 미래를 수호한 영웅들이 있다. 재정적 지원과 함께 우리는 참전용사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들과의 만남에 초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참전용사들은 5월 9일만 아니라 매일 자신이 중요한 영웅임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할린주 사회복지부의 올가 오를로와 장관에 따르면 대조국전쟁의 참전용사들은 각각 8만 루블리를 받으며, 레닌그라드 봉쇄시기의 주민들, 파시즘에 의한 미성년 포로들, 노동 전선의 참전자들에게는 5만5천 루블리를 지급하고, '전쟁의 아이들'에게는 5천 루블리에서 1만 5천 루블리까지 올려 지급하고, 모든 지급금은 4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재정적 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제공된다.
사할린주에서는 참전용사들에게 매월, 매 분기마다, 매해 일시지급금이 규정돼 있다.
또한 참전용사와 '전쟁의 아이들'에게는 무료 치과 보철치료, 휴양-요양치료를 위한 티켓 구입 비용 일부 상환, 무료 대중교통 이용, 공공요금 혜택에 대한 권리가 있다. 또한 만성질환을 가진 이들을 위해 모든 의료적 문제에 개별적 도우미인 건강안내자가 배정되어 있고, 의료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집으로 왕진도 하며, 참전용사 입원실은 특실 병동을 제공하고 있다.

크림반도 반환 기념, 유즈노사할린스크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삼색기 펼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청소년들이 크림반도와 러시아의 재통합의 날을 기념하는 애국행사에 참여했다. 3월 18일(화), 획기적인 국민투표로 크림반도와 세와스토폴이 러시아 연방에 재통합된 지 11주년이 되는 기념일을 맞아 포베다 역사기념 종합박물관 광장에 200명이 넘는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비롯해 '최고들의 운동'활동가들, '유아르미야(청소년군관단체)'의 학생들, '우리 함께'운동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애국행사의 참가자들은 오각별 모양으로 대열을 만들고, 학생들은 '크림은 우리 것!'이라는 상징적 문구를 쓴 러시아 삼색기를 봄 하늘을 향해 펼쳐들었다. 이 행사는 '청년과 아동' 국민기획의 일환, 사할린주 청년사업청의 지원으로 조성되었다
러시아와 크림반도 재통합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청년과 아동'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 청년사업청이 진행하는 광범위한 애국행사의 한 부분으로서 2024년에 사할린 지역에서는 신세대를 위해 조국수호, 참전에 나선 참전용사들에 대한 기억 보존, 역사의 정의 회복을 주제로 하는 300개 이상의 다양한 행사들을 조성해왔다.
매해 이 애국행사에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단신

사할린에서 대테러 훈련 진행

사할린주에서 비상작전본부가 테러 방지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러시아 연방 보안국, 내무부, 비상대책본부 연방교도청, 러시아 국가방위군, 정부기관들이 참여했다.
법 집행기관의 직원들과 비상구조대 요원들은 교육기관에 테러행위의 위협에 대한 정보에 대응하는 여러 대응방안을 개발했다. 지역 비상작전본부는 지난 대테러방지 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나탈리야 쿠프리나, 코르사코브 시장으로 임명

3월 17일 나탈리야 쿠프리나 전 주택공공사업부 장관이 코르사코브 지역 시장으로 임명되었다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렸다.
코르사코브 지역 시장 선거에 출마해 선출된 나탈리야 쿠프리나에게 왈레리 리마렌코가 축하하며 "그녀의 주택공공사업에서의 경력은 이 지역과 주민들에게 유용할 것이라 확신한다." 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쿠프리나는 사할린주 주택공공사업부 장관직을 역임했다.
새로운 사할린주 주택공공사업부 장관으로는 드미트리 아리스타르호브가 임명되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영웅〉 인재프로그램에 특수군사작전 참전자 400여 명 신청서 제출

사할린주에서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영웅〉 인재프로그램 참가를 위한 신청서를 계속 접수하고 있다.
이 기획은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돌아왔거나 전장에서 돌아올 참전용사들을 돕고, 지원하며,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3개월간 진행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영웅〉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칭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도적 직위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등록, 시험, 면접, 교육, 지도적 직위에 임명 등 몇 개의 단계로 구성돼 있다.
후보자 선발에는 고등교육 받았는지, 장래 고등교육을 받을 건지, 6개월 이상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복무했는지 등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뤄진다.
현재 398명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전문가들이 신청서 심사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은 3월 24일까지이고, 교육과정은 2025년 6월 23일에 시작할 예정이며, 전 기획이 진행되는 동안 개별적 지도교사가 동반된다.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리마렌코 주지사, 님흐작가 블라디미르 산기의 90번째 생일을 축하

3월 18일 화요일, 님흐 문학의 창시자이자 사할린주의 뛰어난 작가이자 홍보대사였던 블라디미르 산기가 90번째 생일을 맞았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블라디미르 산기의 기념일을 축하했다. 주지사는 작가와 비공식 회의를 열고 그의 생일을 기념하는 갈라 행사에 참여했다.

엄숙한 행사에서 왈레리 리마렌코는 블라디미르 산기에게 문화 예술 공로 훈장이라는 국가 훈장을 수여했다.

"우리는 사할린 땅의 진정한 아들인 교육자이자 작가, 시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은 님흐어 알파벳과 입문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님흐어 교과서를 만드는 등 님흐어를 보존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다채로운 문학 유산을 남겼고 소수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많은 공공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는 다양한 민족과 국적의 대표자들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다국적 국가로서 러시아가 발전하는 데 기여한 개인적인 공헌입니다. 민족과 국적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보존함으로써 러시아는 여전히 강대국으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주지사가 말했다.

축하를 받은 블라디미르 산기는 기분이 좋으며 계속해서 책을 집필하겠다고 말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저에게 보내주신 큰 관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90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에너지가 있고 매일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 권의 작품집을 출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주, 러시아 전역 및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제가 70여 년 동안 창작 활동을 해온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제 민족과 사할린 땅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산기 작가가 말했다.



블라디미르 미하일로위츠 산기는 님흐 문학의 토대를 마련한 재능 있는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그는 러시아 연방 국가상 수상자이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인권과 자유수호를 위한 국제 연맹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1962년부터 블라디미르 미하일로위츠는 러시아 작가 연맹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미하일로위츠는 1935년 3월 18일 노글리키 지역의 북방소수민족의 나빌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작품은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시와 산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시 '이즈간'과 '팅그라이'를 비롯해 소설 '거짓 곤', '케봉들의 결혼', '추출의 시간', '의흐 신화의 전설'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미하일로위츠는 수년 동안 러시아 작가 연합 이사회 간사를 역임했으며 러시아 연방 북부, 시베리아 및 극동 원주민 소수민족 협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2002년에는 사할린 주지사상을, 2004년에는 사할린 문화 기금상을 수상했다.

블라디미르 산기는 러시아 및 세계 고전을 님흐어로 번역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작가들의 작품집을 편집하고 편집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소수민족인 북방민족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한 공로와 문학 작품의 결실을 인정받아 우호 훈장을 받았다

(주정부 자료에서)

사할린 한인사회계 소식

사할린에서 1세 동포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계속 실시

사할린주한인협회는 지속적으로 '사할린동포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난 15일(토) 돌린스크시에서 1세 동포 어르신들과 1948년생 동포들을 위해 치매예방 수업, 물리치료 및 건강체조, 일반 건강검진이 펼쳐졌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맛있는 밥상도 차려졌다.

'사할린동포 건강 관리' 프로그램은 사할린주한인협회와 사할린주한인청년회가 한국 보건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 측에서 1945년생까지(1945년생 포함)의 동포를 지원하고 있는데 1948년생까지의 동포에 대한 지



원은 사할린주한인회에서 하고 있다고 박순옥 회장이 전했다.

주한인협회, 특수군사작전 군인들을 위해 김치 장만

사할린주한인협회는 68 군단의 군인들을 위해 특수군사작전 지역으로 대량의 김치를 보냈다. 단체는 특수군사작전 전장으로 김치를 처음 2년 전에 보냈는데 김치가 인기가 있

어 이미 여러 번 보냈다고 한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이번 김치를 담그기 위해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추를 구입하며 절이고, 양념과 모든 자료를 준비한 김순애 씨

와 박경춘 선생에게 깊이 감사를 드렸다.

지난 15일(토) 사할린주한인청년회 회원들은 김치를 본격적으로 담그고, 17일은 포장하고, 18일은 이 김치를 비행기에 옮겨 특수군사작전 지역으로 배송했다. 이에 대해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협회 회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회장으로 림종환 씨 재선

지난 15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에서 본회 결산선거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림종환 회장의 2년간 사업 보고가 있었고, 감사위원장의 재정부문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다수가결로 시한인회 회장으로 림종환 씨가

재선되었고, 운영위원회 11명이 선출되었다. 이날 운영위원 당선자 모두가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를 발표했다. 또한 회의에서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선정하고, 감사위원장으로 김정순 씨가 선출되었다.

회장 및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군병원 지원

얼마 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군병원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에 제설용 삽 구입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시한인회는 이 요청에 즉시 대응했고, 이번

에 삽들을 전하면서 단체 대표들은 앞으로도 군병원의 필요에 맞춰 지원과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제 6회 가족 독서 축제 <도서공원>, 안톤 체호브 탄생 165주년 기념

2025년 3월 15일(토) 아동도서관에서 제 6회 <도서공원> 가족독서축제가 열렸다.

도서관 3층은 안톤 파블로위츠 체호브의 삶과 작품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사할린주 아동도서관과 함께 '독서센터'와 '쥐에스 그룹' 회사가 축제를 주최하면서 독서가 가족을 하나되게 만드는 독특한 방법임을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도서공원> 축제의 주요 목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바로 이번 축제는 아동들과 청소년, 이들의 학부모와 조부모들 모두에게 흥미로움을 안겨주었다.

이날 20명 이상의 예술 전문가들이 낭독자들을 기다렸다. <밤톨이와 그의 친구들> 유아들을 위한 몰입형 극장은 서커스 현장으로 참석자들을 옮겨놓았다.

<일하는 브롬 이사예위츠> 작품은 체호브의 작품 속에서 볼 수 있는 19세기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체호브의 가족게임에서 옛 로또와 다른 게임들은 작가의 친구들이 밤늦도록 앉아 즐겼던 게임의 규칙을 가르쳐주었다.

청소년들은 <체호브 - 만화 투어: 사할린으로의 모험> 코너에서 만화가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고, 또한 <체호브 라이브>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아동 및 청소년 창작센터의 '오스트로브' 연극스튜디오 청소년 연기자들의 연기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되살려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쥐에스 그룹>팀의 디지털 샌드박스는 사할린의 지명에 빠져들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독자들은 직접 모래로 체호브산을 만들 어보기도 했다.

<디지털 팔레트에서 체호브: 인공지능으로 그려보자>행 사장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능을 익힐 수 있었다. 또한 축제의 방문객들은 19세기 안톤 파블로위츠가 진짜 깃털펜으로 작성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족구성원조사 카드를 깃털펜으로 작성 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오스트로브 사할린' 체호브 책 문학-예술박물관의 직원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박물관 직원들이 개발한 <안톤 체호브의 사할린의 겨울>디지털 전시회에서는 사할린에 대한 책 편찬 작업에 반영된 고전 작가와 그의 친구들의 편지를 축제 참가자들에게 소개했다.

축제에 특별 손님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유명 작가들로서 니나 다세브스카야, 알렉산드라 자이체와, 민스크에서 온 파오 구쉬네츠가 초대되었다. 작가들은 독자와 만남을 가지며 누구나 작가로부터 친필사진과 친필사인 도서도 받을 수 있었고, 도서관 1층에서는 국내 최우수 출판사들의 도서 박람회도 열렸다.

VI 페스티벌 가족의 읽기 «Книжный парк» 165-летие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нтона Чехова

15 марта 2025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е проводился VI фестиваль семейного чтения «Книжный парк». На всех трех этажах библиотеки работали разнообразные площадки, посвященные жизни и творчеству А.П. Чехова.

АНО «Центр чтения» и компания «Джи Эс Групп», которые наряду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ой являются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фестиваля, считают главной миссией «Книжного парк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нагляд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что чтение – уникальный способ объединить семью. На фестивале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всем: детям и подросткам, их мамам и папам, бабушкам и дедушкам.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2024년 체호브 기자상 시상식 개최

지난 15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마야크'아트 공간의 주 미술박물관 전시장에서 주 내 신문사와 티비 방송 대표와 기자, 언론인 등이 모인 가운데 러시아 언론인연맹 사할린지부의 주최로 2024년 체호브상 언론인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러시아 언론인연맹 사할린지부장이자 기자상 심사위원장인 블라디미르 세멘치크는 모든 동료들을 환영하고, 행사 개최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올해 대회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참가자들은 예년과 달리 최대 3개 작품 대신 최대 2개의 작품을 제출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심사위원단은 38명의 언론인들과 작가 팀으로부터 54개의 지원서를 접수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쿠릴스크, 포로나이스크, 흠스크 등 사할린주의 여러 도시에서 출판물이 접수된 가운데 참가자들 중에는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저널리스트가 거의 같은 수로 참가했다. 최우수 매체 기획 후보에는 5개의 편집국이 경쟁했다. '최고의 스타트' 부문에서는 경력 3년 미만의 젊은 기자 5명이 경쟁했다.

"사할린의 창의적인 젊은 이들이 언론인으로 꿈꾸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라고 블라디미르 세멘치크가 말했다.

그는 박수를 보내며 작년 말 러시아 언론인 연맹에 입회한 4명의 신입기자에게 회원 자격증을 수여했다.

텔레비전 부문 최우수 자료로 'OTV 사할린' 방송국의 특파원 이고리 안찌포프와 카메라맨 드미트리 프로타소브가 특별 리포트 '러시아 네덜란드인'으로 수상했다.

'최고의 스타트' 부문에서는 "노숙자들의 겨울 준비"란 특별 리포트로 'OTV 사할린' 특파원 예카테리나 콜리니첸코와 "매일의 특별함: 사할린 동물원의 '무대 뒤'는 어떨까"라는 인터뷰로 '사할린미디어' 통신사 특파원 나탈리아 야누쉬케위츠가 선정되었다.

인쇄 매체 부문 최우수 출판물 후보에서 심사위원단은 '소베츠키 사할린' 신문의 특파원 류드밀라 스테파네츠의 '치마를 입은 악마 - 신이 보낸 선장'이라는 제목의 기

사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 기사는 20세기 중반 사할린 지역에서 일했던 세계 유일의 여성 포경선 선장 왈렌티나 오를리코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라디오 최고의 자료'부문에서 심사위원단은 이날 행사 진행자인 알료나 바리노와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라디오 'ASTV'에서 정기적으로 방영되는 일련의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로 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즌 최우수 매체 기획으로는 '우리말 방송'국이 선정되었다. 김춘자 국장과 이복순 기사는 한민족의 전통과 풍습에 대한 TV 시리즈를 제작해 사할린 국영 텔레라디오 방송에서 방영했다.

그외 추가 부문에서도 시상식이 있었다.

세멘치크 지부장은 2025년 기자 경연대회가 기대된다고 이날 표명했다.

(본사 기자)

<전함 '팔라다'>책 중심으로 지역학(한국) 경시대회 진행

지난 3월 18일(화) 5학년 ~ 11학년 사할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할린국립대학이 추진하는 상식 경시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개최하는 이 경시대회는 전통적으로 사할린 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대학(학장 임 엘베라)과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옥)가 주최하고 있다.

경시대회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등지 9개 교육기관의 학생 150여 명이 참가했다고 주최측이 전했다.

이번 경시대회 주제는 <조선: 전함 '팔라다': 아시아 국경에서의 러시아의 세계>였다. 학생들은 이반 곤차로브 소설가의 <전함 "팔라다">작품을 두고 문제에 답을 해야 했다. 19세기 중반에 극동과 아시아 지역 탐험에 나선 곤차로브 작가는 아시아 지역과 극동에 대한 탐험을 쓴 '전함 팔라다'라는 기행문을 책으로 출판했다. 곤차로브는 '팔라다'전함을 타고 탐사한 사람이었고, 러시아인 최초로 1854년 당시 조선의 거문도와 동해안을 탐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겼다. 조선에서 잠깐 머물렀기 때문에 자세한 연구는 못했지만 조선인의 민족성이



중국, 일본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강조했다. 이 책은 한국어 번역본도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이 책에 독도가 그 당시 조선의 땅이라고 밝힌 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올림피아드의 필기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어문·역사·동양학대학 교수와 대학생들의 주도로 매혹적인

공에 활동교실에 참가했다. 이들은 이날 <전함 '팔라다'>에 언급된 조선의 전통의상인 한복으로 펜던트를 만들어보았다.

이날 경시대회와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학생들은 한민족의 전통에 대해 더 알게 되었을 것이다.

(드미트리 포구다예브) (사진: 사할린국립대 제공)

사할린주에 조정의료재활센터 설립

사할린주 재활센터를 방문하는 사할린의 환자들은 의료적 재활을 의뢰할 때 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조정재활센터는 회복 치료에 대한 효능과 부작용 판별을 위해 의료인과 환자들을 돕는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심한 부상이나 뇌졸중 후에 회복을 위한 적절한 재활과정 진행 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 현대적인 재활방법은 심각한 합병증을 극복하고, 운동적 및 언어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때론 필요한 재활과정들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나 특정 조건의 경우 금지되는데 조정재활센터에서는 환자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사할린주 조정재활센터에서는 심각한 혈관 사고나 외상성 뇌 손상 후, 관절이나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수술 후, 심각한 폐렴을 겪은 후, 사할린주 병원 입원실에서 실시하는 1

단계 재활을 마친 후에 재활센터에 들어간다. 좀더 일찍 2차 단계를 시작할수록 회복의 가능성도 커지며, 이를 위한 특별 전문장비와 훈련된 직원이 준비돼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재활은 동반된 질환의 상태, 질환의 단계, 전반적인 신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2차 재활단계로 전환하기에 앞서 화상 원격상담을 통해 모든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병원 부설 조정재활센터는 3월 말에 개설할 예정이다. 이로써 사할린 주민들에게는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기게 된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지시로 재활센터에 새로운 건물이 건설되어 봄에 개소하고, 환자들을 접수할 예정인데 이곳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 중 하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환자를 위한 재활부서가 그 기능을 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 2025년에 쿠릴열도 부근에서 연어조업 협약

2025년에 일본의 어업 종사자들이 러시아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최대 125톤의 연어류를 어획할 수 있게 된다. 2025년 상호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조업에 대한 문제로 러시아와 일본의 양 정부 간 대표들이 합의한 가운데 협약이 체결되었다. 양 정부 간 연례 회의는 이번에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상으로 진행됐다.

3월 14일(금) 일본 언론은 일본 어민들이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저인망 어선으로 연어와 송어 조업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한 협약을 모스크바와 체결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일본의 수산업자들은 러시아 수역에서 125톤의 연어류를 어획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일본 측에서는 조업권 비용으로 러시아 측에 약 2천500만 엔(1450만 루블리)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비용이 지불되었다고 홋카이도신문이 전했다.

일본의 조업은 서해안 도야마현 수산업체의 선박이 조업에 착수할 계획인 가운데 이 선박은 유즈노-쿠릴 인근 홋카이도 북동쪽 네무로 항구에서 출항해 조업에 나선다.

일본 어민들은 주어진 할당량 범위에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정 조업기간에 연어 어종 중 흥연어 10톤, 연어 21톤, 송어 90톤, 은연어 3톤, 왕연어 1톤을 어획할 계획이다.

양측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러시아 강에서 부화한 연어 조업 문제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 협약을 3월 13일까지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3월 14일 하루 더 연기 되었다고 '홋카이도 신문'이 전했다.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시범적 조업을 위한 충분한 조건에 도달해 협약이 잘 성사됐다고 전했다.

2016년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유연망을 이용한 연어잡이는 해양생물자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러시아의 법률에 따라 금지되었다. 일본 수산업체의 조업장비 대체에 대한 법률에 따라 올해는 저인망 조업의 수익성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재정지원을 제공해야 했다.

국가의 영토가 끼고 있는 강에서 생선들이 알을 낳아 그 알에서 부화해 나간 생선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수행하긴 해도 러시아 측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2024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획 할당량은 2050톤에 달해 이에 일본 측에서는 약 1억8천만 엔 -3억 1천300만 엔을 모스크바에 지불해야 했다.

러시아와 일본의 상호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연어잡이는 1984년 -1985년의 기초협약에 근거해 수십 년간 계속 이어져왔다.

사할린 통계국: 2월 사할린에 양배추 가격 상승, 당근 가격은 하락

2025년 2월 사할린의 식품가격이 1월 대비 2.06% 상승했다. 가장 크게 가격이 상승한 식품은 양배추와 과일주스였다고 사할린 통계국이 전했다.

식품가격은 2.06% 올랐고, 2월 중 가격이 높게 상승한 식품들은 양배추(+13.1%), 과일주스(10.3%), 요구르트(8.4%), 미네랄 생수(8.3%), 염장 청어(7.8%), 생오이(7.7%), 칠면조고기(+6.8%), 양파(6.1%), 뼈있는 돼지고기(4.7%), 버터(4.4%)이다.

가격이 가장 적게 오른 식품들은 토마토(+1.1%), 바나나(+1.1%), 빵(+1.2%), 케이크(+1.4%), '게르쿨레스'오트밀(+1.4%), 완두콩과 강낭콩토집(+1.5%), 호밀빵(+1.7%), 스메타나, 우유, 연유(+1.8%)가 있다. 다른 영역의 식품들은 평균 1.8% - 4.4% 가격이 상승했고, 요식업체의 음식 가격은 2.4% 올랐다. 당근 가격의 하락이 눈에 띄는데 당근은 2.1% 하락했다고 통계국 직원들이 강조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нкурс эссе к 75-летию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стите меня, папа! Благодарю за все, мама!»

Ким Сан Сун(Южно-Сахалинск), 2 место

История нашей семьи начиналась безумно красиво и романтично!.. Когда папа Ким Бон Ен(김봉응), на тот момент 20 летний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впервые увидел маму Дё Де Гым(조재금), ей было 18. И это была любовь с первого взгляда. Встретились они, юные корейцы, в Киото, древней столице Японии, в разгар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Дорога на север

...В доме открылись створки раздвижных дверей, и в широком проеме он увидел девушку необыкновенной красоты. Она сидела, склонив голову за шитьем, тень от ресниц падала на щеки широким веером. Таких густых длинных ресниц юноша не видел ни у кого. Черная, туго заплетенная коса, лежала на груди, падая куда-то вниз к ногам. Черноту волос и ресниц подчеркивала нежная белая кожа. Он замер... Она, почувствовав чей-то взгляд, подняла глаза, но не увидела никого. Мой будущий папа и друзья, приведшие его к дому незнакомки, прятались за соснами в тени сумерек. А он видел девушку отчетливо, комната была озарена ярким светом. И тут она улыбнулась, сверкнув ровными белыми зубками. Ему показалось - она улыбнулась ему. И только ему. Будто разглядела его во тьме.

Вскоре юноша посватался к красавице. Ее родители приняли претендента более-менее благосклонно. Хоть и не богат, но здоров, хорош собой, воспитан, намечались какие-то перспективы в будущем. И времени перебирать женихов уже нет. Она - старшая дочь, за ней сын, которого надо выучить, и две младшие дочки, которых тоже надо пристраивать. Идет война, и никто не знает, что случится завтра.

Тем временем, старший брат папы уже отплыл на большой северный остров Карафутто с мамой (отец умер рано), младшей сестренкой и женой, и по некоторым сведениям нашел работу в городе Тойохара. За старшим братом поспешил и младший. Надо было представить матушке свою избранницу. Так, в 1944 году мои будущие родители оказались на острове Сахалин. До моего рождения оставалось 10 лет.



(Фото молодой пары-1944 год)

Война заканчивалась, это чувствовали все. Японские власти принимали все более жесткие меры по мобилизации в квантунскую армию и вербовке рабочих на шахты и лесоповалы северного острова. Корейцы не хотели идти воевать на стороне тех, кто поработил их родину. В Японии крепились ряды корейского сопротивления.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оставалось лишь два пути-подполье или север. И в нашей родне с ма-

миной стороны-примкнули к сопротивлению, а с папиной-пустились в путешествие в неизведанный северный край. И в том, и в другом случае исход мог быть смертельным. Никаких гарантий! Только надежды на лучшую долю...

Ожидание неведомых русских

Про этот год с 1944 до 2 сентября 1945, дня подписания капитуляции императором Хирохито и освобождения советской арми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родители говорили крайне мало и неохотно. Чуть не утонули в море на шатком судне, пришлось сбросить в воду почти весь скарб. Удалось привезти только мамино приданое - швейную машинку «Зингер». Мама вцепилась в свое сокровище и никому не позволяла до него дотронуться. Все детство мы, трое детей - брат, я и сестренка, ходили в сшитых матушкой ситцевых и штапельных платьях, рубашках и халатах. Мы спали на простынях и наволочках, заструганных на «Зингере». Ничего покупного казенного не было в нашем доме.

Ютились в хлипких бараках по несколько семей, голодали, перебиваясь случайными заработками, боялись лишней раз выйти на улицу...С еще большим страхом ожидали пришествия русских, когда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в рамках капитуляции Япония передавала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южную часть Сахалина и острова Малой Курильской гряды. Никто не знал, какие они, русские? Что они сделают с нами?

Большинство стремилось вернуться на родину в Корею, попасть на судно до, или хотя бы до Японии, оттуда - домой. Ведь война кончилась! Со всех городов и поселков острова корейские семьи стекались в порты Маока (Холмск) и Одомари (Корсаков). Добирались, кто на чём, но чаще - пешком, с малыши детками за спиной. Людей питала надежда, что японские власти отправят их на родину. Последние корабли уходили с порта Одомари. Но они забирали только своих подданных - чистокровных японцев. Про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х десятилетиями заставляли менять фамилии и имена на японский лад, говорить только по-японски, не вспоминали. А ведь с 1905 года, за десятилетия д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тысячи молодых корейских мужчин подверглись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отправке на дальний север японской империи, остров Карафутто (Сахалин). Их оторвали от отцов, матерей и жен, завезли на дикий остров как дешевую рабочую силу и бросили на произвол судьбы... На сопке вокруг порта Одомари в осенние дни 1945-го собрались тысячи и тысячи корейцев, мечтавших об одном -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Они спали вповалку прямо на сырой земле и с раннего утра до ночи высматривали в море одну цель-корабль. Дни уходили за днями, но никто не пришел за ними. Многие умерли там же от голода, другие позже - от тоски... Большая часть, движимая инстинктом выживания, разбрелась по окрестностям в поисках крыши над головой и хоть какого-то пропитания. Вскоре границы закрылись. Почти на полвека.

Мои родители даже не пытались сесть на корабль, было очевидно - попасть на отплывающие суда невозможно. И мой 22-летний папа воспринял сложившуюся ситуацию как опасное приключение, в котором надо выжить и победить. Ведь главное рядом - любящая мама и любимая жена, старший брат и сестренка - почти вся семья оказалась вместе на острове. Они нашли заброшенный уехавшими японцами барак, и стали обустраиваться. Думали: русские тоже люди, с нас нечего взять, у нас нет оружия - не станут убивать. Но, конечно, тоска по родине и по старшей сестре, которую перед отъездом на Карафутто спешно пристроили, выдав замуж за человека намного старше - всегда щемила сердце папы и особенно бабушки. Я так и помню свою бабулю, смотрящую вечерами на закатное солнце и тихо - тихо издающую печальную бессловесную песню.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Школьники Сахалина ответили на вопросы о Корее

18 март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а олимпиада СахГУ по страноведению(Корея) для школьников (5-11 класс)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Тема олимпиады была определена как «Корея: «Фрегат «Паллада»: русский мир на азиатском фронтир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традиционно выступили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лимпиада собрала свыше 150 школьников из разли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гимназия №2 и гимназия №3,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лицей №1 и лицей №2, средняя школа №3 им. Героя России Сергея Ромашина, средняя школа №23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СОШ №2 (г. Корсаков) и Дом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г. Долинск).

Олимпиада включала в себя тестовые задания, основанные на произведении Ивана Гончарова «Фрегат Паллада». Эта книга очерков, в основу которой легли путевые заметки, рассказывает об экспедиции на русском военном парусном корабле в середине 19-го века и содержит описан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и соседствующих стран Азиатского региона, включая Корею.

Участники олимпиады смогл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и знания в

области литературы,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школьников ждал увлекательный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кладному декорированию,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и студентами старших курсов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В ходе мастер-класса участники олимпиады вместе со студентами СахГУ изготовили подвески с традиционным корейским костюмом «ханбок», который упоминается в книге «Фрегат Паллада» в контексте описания Кореи.

Олимпиада предоставила школьникам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проверить свои знания, но и приобщиться к культурному наслед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зии.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РООСК отправил в зону СВО партию кимчч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тправил в зону СВО крупную партию кимччи для бойцов 68-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Именно этог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блюда так не хватает нашим сахалинским солдатам вдали от родины,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канал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Это уже третья посылка с кимччи для бойцов СВО, собранная с любовью и заботой.

Уже 17 марта партия кимччи была готова к отправке, а 18 марта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тинец отправился на борт самолёта.

В Долинске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прошла программа поддержки здоровья

15 марта в городе Долинск прошла программа поддержки здоровья,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торого поколения до 1948 года рождения.

Организаторы смогли прове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несмотря на сложные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бабушек и дедушек был подготовлен обширный комплекс мероприятий: серия занятий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лечебная физкультура (ЛФК), физиотерапевтические процедуры, общий осмотр у врача-терапевта. После полезных процедур участники с радостью размялись и повеселились, участвуя в играх и упражнениях с мячом. Завершился день вкусным и сытным обедом.

* Программ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молодеж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ЮСМООК прошло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е собрание

15 марта 2025 г. прошло очередное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е собрани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Главным вопросом повестки дня были выборы нового состава правления и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канал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Были заслушаны отчет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за отчетный период, а также результаты проверки финанс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В состав правления вошли 11 человек.

Председателем на новый двухлетний срок большинством голосов вновь избран Лим Ден Хван, его заместителем - Пак Вениамин. Ревизионную комиссию возглавила Ким Ден Сун.

Оказали помощь военному госпиталю

Сотрудники военного госпиталя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братились 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с просьбой о помощи в приобретении лопат для уборки снега. Организация оперативно откликнулась на просьб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изации выразили готовность оказать поддержку и предоставить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нужд госпиталя.

Такой акт доброй воли подчёркивает важн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взаимопомощи в нашем обществе, сообщили в ЮСМООК.

(Подготовила Виктория БЯ)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Замглавы МИД России встретился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МИД КНДР

15 марта в Пхеньяне прошли переговоры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Андрея Руденко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на переговорах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Ким Чжон Гю «подробно обсуждены практические меры по активизации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оговорённостями, достигнутыми на саммите КНДР и России в июне 2024 года, а также в духе Договора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ёрстве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Переговоры прошли в дружественной атмосфере, стороны «проявили единство мнений по всем обсуждённым вопросам»,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В тот же день Андрей Руденко нанёс протокольный визит министру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Чхе Сон Хи.

Развёртывание истребителей США в Японии провоцирует конфликт

Развёртывание в Япо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эскадрильи американских истребителей F-35B провоцирует конфронтацию с КНДР.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комментарии агентства ЦТАК,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16 марта. США своими практическими действиям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конфронтационные намерения». Развёртывание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техники, которая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в случае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делает менее прогнозируемыми риски, связанные с возникновением ядерной войны. «Даже один случайный выстрел» может вызвать столкновения между сторонами, - говорится в комментарии. В нём особо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любые американские подкрепления в силах и средствах, предназначенных для ведения войны, будут встречены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и уничтожены».

Возобновляются поиски останков погибших в годы войны

12 марта после перерыва, вызванного холодной погодо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возобновили поиски останков солдат, погибших в годы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53 год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раскопк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до 28 ноября в 34 местах сражений, включая уезд Янгу-гун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и уезд Чхильгок-кун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Проект поисков останков и идентификации погибших солдат реализуется с 2000 года. За это время обнаружены останки 11.469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лдат и 37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ООН.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собрать не менее 220 комплектов останков и идентифицировать минимум 25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Кроме того,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собрать 12 тысяч образцов ДНК членов семей павших солдат, чтобы помочь в идентификации найденных останков.

В РК продолжается ввод в действие мобильных удостоверений

В РК продолжается ввод в действие мобильных удостоверений личности. С 27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их могут оформить ж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города Сэчжона, а с 14 марта документы нового поколения доступны жителям Сеула, Пусана и Кванчжу.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мобильн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ну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центр обслуживания населени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С 28 марта данная услуга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в любом общественном центре, независимо от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а также на сайте Government 24. Для защиты личных данных применены перед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включая блокчейн и шифрование. Документ можно оформить только на одно мобильное устройство. Он является полным аналогом пластиковой карты, и его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езде, где необходимо подтверждение личности, включая банки.

США введут взаимные тарифы 2 апреля

США введут взаимные импортные тарифы 2 апреля, как и планировалось. Об этом заявил 16 марта журналистам по возвращении из Вашингто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К на торговых переговорах Чон Ин Гё. Такие тарифы будут введены в отношении стран, имеющих профицит в торговле с США, включая РК. Они будут установлены с учётом тарифов других стран на американские товары, нетарифных барьеров, валютных курсов, налогов на добавленную стоимость и других факторов. Американская сторона подтвердила свою позицию,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сокращение профицита возможно исключительно с помощью взаимных тарифов. Поскольку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лично контролирует тарифную политику, все его решения будут реализованы, - отметил Чон Ин Гё. Он уточнил, что в ходе его визита не были затронуты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снятия ограничений на поставки американской говядины в РК.

RKI

Сеул стал ареной масштабных противостояний сторонников и противников Юн Сок Ёля

В прошедшие выходные центр Сеула стал ареной принципиального массов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между сторонниками и противниками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Юн Сок Ёля. 15 марта две крупные демонстрации, каждая численностью около 40 тысяч человек, заполнили улицы столицы, превращая город в политическую арену. Этот день стал одним из самых масштабных в череде протестов,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президентский срок Юна, а также ожидаемое решение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который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олжен решить, останется Юн Сок Ёль на посту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или будет окончательно отправлен в отставку.

"Юн - в тюрьму, мы - в будущее!"

Как сообщили местные СМИ, демонстрируя кадры с многотысячными митингами, противники президента заполнили центральную площадь Сеула Кванхвамун и прилегающие улицы, начиная от района Ангукдон и вплоть до станции метро "Кёнбоккун". Среди протестующих можно было увиде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лич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движений, профсоюзов и оппозиционных партий, объединившихся под лозунгами борьбы за "защиту демократии". Люди держали транспаранты с надписями "Юн в тюрьму, мы - в будущее!", "Президент предал народ!" и "Импичмент - спасение Кореи". Толпа пела протестные гимны, а организаторы скандировали требования об отставке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Многие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видят в Юне символ отката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ценностей, обвиняя его администрацию в авторитарных методах управления, вмешательстве в судебную систему и давлении на прессу.

Марш противников президента начался в 18:30 и охватил центральные улицы Сеула. Под звуки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и и песен протеста десятк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двигались плотной колонной, выражая свое недовольство нынешним курс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У некоторых демонстрантов в руках были портреты предыдущих лидеров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ых они считали образцами более демократичного правления. Не обошлось и без сатирических плакатов, изображающих Юна в виде диктатора или коррумпированного чиновника.

"Юн должен остаться!"

В другом районе города, Йоидо, рядом с парламентом собрались сторонники президента, их лозунги звучали в защиту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и против процесса импичмента. Среди митингующих было немал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ых движений,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протестантских групп, традиционно поддерживающих консервативные власти. На сцене, установленной в центре митинга, выступал пастор Чон Кван Хун, один из самых активных сторонников Юна. Он называл попытку импичмента "заговором против законно избр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изывал своих последователей выйти на улицы, чтобы защитить страну от "разрушительных сил левых радикалов".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размахивали флагами Южной Кореи и США, пели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песни, а скандирование "Юн должен остаться!" заглушало даже звук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ей.

Без стычек, но с особыми мерами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двух митингов привело к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 мер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лиция мобилизовала 3600 сотрудников для контроля ситуации, установила заграждения и заблокировала ключевые въезды в центральные районы столицы. Несмотря на высокую напряженность и возможные риски столкновений, митинги прошли без серьезных инцидентов. Организаторы обоих протестов следили за порядком, а полиция четко разграничивала маршруты передвижения демонстрантов,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прямого столкновения двух лагерей.

Нация расколота

Эти массовые акции протеста происходят на фоне ожидания решения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по вопросу об импичменте Юн Сок Ёля. Хотя точная дата вердикта пока не объявлена, политические обозреватели считают, что эти протесты стали своеобразным последним аккордом перед решением, которое может радикально изменить политический ландшафт страны. Для оппозиции импичмент - это шанс избавиться от президента, которого они считают разрушителем демократии. Для сторонников Юна - это атака на законно избранного лидера и попытка дестабилизации страны.

Южная Корея замерла в ожидании вердикта,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быть оглашен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должен либо одобрить импичмент парламента, отправив Юна в отставку и назначив досрочные выборы президента, либо наоборот восстановить его на посту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Какое бы решение ни вынес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оно неизбежно приведет к новым политическим потрясениям и определит дальнейший курс Южной Кореи. Вопрос только в том, удастся властям сдержать нарастающее недовольство или же улицы столицы снова заполнят десятки тысяч протестующих, готовых бороться за свою правду.

Напомним, что продолжающийся до сих пор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й кризис начался в Южной Кореи в ночь с 3 на 4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Юн Сок Ёль, обвинив парламент в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неожиданно для корейцев и всего мира ввел военное положение. Оно было быстро отменено тем же парламентом, а 14 декабря депутаты объявили ему импичмент. Юн сначала был задержан и доставлен в следственный изолятор, но затем суд выпустил его, указав на нарушение процедурных норм со стороны следователей. Это, однако, не сняло обвинений в адрес Юна. Сейчас его ждут два суда -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который будет решать останется ли он президентом, и уголовный, гд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дело Юна с обвинениями в его адрес в попытке захвата власт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Корейский след в космическом альянсе

Вашингтон, 18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Джонни Ким, первый американский астронавт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отправится н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космическую станцию 8 апреля.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на сайте NASA, Ким поднимется на борт космического корабля «Союз MS-27» вместе с космонавтами Сергеем Рыжиковым и Алексеем Зубрициным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космиче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России. Согласно заявлению NASA, во время восьмимесяч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на борту орбитальной лаборатории, которое завершится поздней осенью, Ким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научными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и испытаниями, чтобы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будущим космическим миссиям, а также принести пользу людям на Земле. «Для меня большая честь представлять NASA в нашем стремлении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и научным открытиям», — написал Ким в Instagram. Предстоящая миссия станет первым космическим полетом Кима с тех пор, как он был выбран в качестве астронавта NASA в 2017 году.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подготовки в качестве кандидата в астронавты в 2020 году Ким выполнял несколько функций для поддержки работы экипажа, в том числе был ведущим оперативным офицером 65-й экспедиции, координатором операций Т-38 и главным инженером космической станции.

41-летний Ким родился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в семь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ммигрантов. Он служил в отряде «Морские коты» ВМС США и участвовал в нескольких боевых операциях с высоким риском для жизни. Он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врачом, получившим образование



в Гарвардской медицинской школе и прошедшим стажировку в Гарвардской резидентуре по неотлож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Массачусетской больнице общего профиля и Бригамской женской больнице. Кроме того, он получил степень бакалавра по математике в Университете Сан-Диего. «Более двух десятилетий люди непрерывно живут и работают на борту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смической станции, расширяя научные знания и совершая открытия, которые невозможны на Земле. Станция является важнейшим испытательным полигоном для NASA, позволяющим понять и преодолеть трудности длительных космических полетов, а также расширить коммерчес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на низкой околоземной орбите», —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NASA.

По 8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лучают участник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увеличить выплаты ветеранам и детям войны в честь 80-летия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Вопрос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губернатор поднял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егодн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оживают 247 ветеран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 11950 детей войны. Ежегодно ко Дню Победы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они получают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выплаты. В этом году по реш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размер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был увеличен.

— В этом году мы празднуем 80-летие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И в центре этого значимого события — герои, ценой своей жизни отстоявшие наше будущее. Помимо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мы должны окружать ветеранов всесторонней помощью, предоставлять лучшие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приглашать на встречи с молодежью. Наши ветераны должны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главными героями не только 9 мая, но и каждый день,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сообщила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льга Орлова, участник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получают по 80 тысяч рублей, жители блокад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бывшие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узники фашизма и участники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 по 55 тысяч рублей. Выплаты для детей войны повысили с 5 до 15 тысяч рублей.

Все выплаты планируется осуществить к концу апреля.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производится в беззаяви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Отмети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ветеранов предусмотрены ежемесячные, ежеквартальные и ежегодные выплаты. Ветераны и дети войны имеют право на бесплатное зубопротезирование, компенсацию части расходов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путевки на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ое лечение, бесплатный проезд в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выплаты на коммунальные услуги.

За ветеранами и детьми войны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закреплены проводники здоровья — персональные помощники по всем медицинским вопросам.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медпомощь оказывают на дому. В стационаре для ветеранов предусмотрены отдельные палат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25 году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уют 16 учрежде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11 школ и 5 детских са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будут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Территории ещё 16 детских садов ждет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благодаря участию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федера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ю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Об этом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рассказала в рамках встречи с депутат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 Уже третий год при активной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дет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школ и детских садов, обновление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С 2022 года были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34 школы и 18 детских садов. Более 15 тысяч островных школьников стали учиться в современных комфортных и безопасных условиях, — рассказа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 числе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ных — школа №2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а 1968 года постройки.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я школьных систем образования» в 2023 и 2024 годах здесь был проведен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нутренних помещений и фасада здания. В дальнейшем запланирован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В Холмском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Все лучшее детя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Молодежь и дет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проводится в двух учреждениях —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е в селе Чапланово и коррекционной школе в Холмске. В коррекционной школе основные работы по ремонту фасада здания и замене электропроводки в помещениях завершатся к концу первого квартала 2025 год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заключаются контракты на постав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обновление внутренней части школы.

Программа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не только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но и комплексное развит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бновле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закуп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педагогов. Все это позволяет создать комфортную и современную 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среду. Модернизация детских садов области также предполагает комплексный подход. Так, в Аниве в детском саду «Сказка» проходит масштабный ремонт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емья», а обновление территории учреждения будет выполнено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Счастливое детство». Полностью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ный детский сад встретит детей уже в сентябре 2025 год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ила и передала в работу «Атлас лучши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решений», который вобрал в себя успешные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актики и стал продуктом ви-

зуального стандарта школ разных типов: большой городской школы, сельской школы, малокомплектной сельской школы.

— Мы накопили большой опыт и смогли его обобщить. Я рада, что благодаря совместным усилиям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министерства эффе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нам удалось создать «Атлас лучши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решений» и «Календарь заказчика»,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не только принять лучш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е решения каждому из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ошедших в данную программу, но и оптимизировать процесс проведения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ют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порядка 30% школ. А в регион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территорий детских садов «Счастливое детство», инициированную губернатором, включено 97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рассматривают предложение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вого грузового терминала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ла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рассматривают предложение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инвестора — построить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овый грузовой терминал. Совещание, посвященное этому вопросу, прове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Главная воздушная гавань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ыстро развивается. Летом 2023 года было введено в строй новое здание аэровокзала — самое большо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ейчас строится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ая полоса. Ее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 3400 метров, ширина — 60 метров.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стройки аэропор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может принимать самолеты всех типов, в том числе и самые крупные машины. В результате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сделать Сахалин крупным авиационным грузовым хабом, привлеч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инвестиции,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ат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егиона,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созданию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для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ведет работу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Инвестор — крупн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компания — намеревается за счет соб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построить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овый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й грузовой терминал. Общая площадь — более 32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 Мы будем внимательно изучать получен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Сегодня в нашем аэропорту действуют контейнерный терминал и склад-пакуз общей площадью около 14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Их пропуск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уже не отвечает потребностям региона. Между тем, по оценкам экспертов, поток грузов через аэропор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удет только увеличиваться. Это обусловлен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реализацией в регионе долгосрочных проектов развития, например, в сфере добычи и переработки углеводородов. Также наблюдается рост спроса на мультимодальные перевозки по схеме «море — авиа». Наш регион, в котором сходятся важные водные и воздушные пути, может занять выгодную позицию на этом рынке. Следует также учитывать увеличение объемов Интернет-торговли, наращивание поставок морепродуктов с помощью авиации.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увеличивать потенциал главной воздушной гавани области в части грузовых перевозок,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2024 году поток грузов через существующий терминал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авил 14,7 тысячи тонн.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создан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центр медицинск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Сократить количество действий при направлении на медицинскую реабилитацию смогут островные пациенты при обращении в сахалинский област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СОРЦ). В учреждении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структуру, которая будет помогать медицинским работникам и пациентам в определении показаний и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й к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ому лечению.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после инсульта или тяжелой травмы может занять меньше времени при грамотной маршрутизации. Современные методы реабилитации помогают справиться с тяжелыми осложнениями, восстановить двигательные и речевые функции. Но даже такие нужные процедуры могут иметь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я или быть запрещены при определенных состояниях. В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м центре пациентам будут помогать пациентам в решении этих вопросов.

— В СОРЦ пациенты будут поступать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1 этапа реабилитации,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тся в стационара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сле тяжелых сосудистых катастроф или черепно-мозговых травм, после операций на суставах и при поражении периферической нервной системы, и даже после тяжелой пневмонии. Чем раньше начнется второй этап, тем больше шансов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Для этого имеетс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штат сотрудников. Но этот вид реабилитации может

зависеть от многих факторов — наличия сопутствующих заболеваний, стадии болезни, общего состояния организм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2-го этапа реабилитации может потребоваться компенсация обострившегося хронического или излечение остр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нормализация определенных показателей состояния организм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 определиться в этом человеку помогут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СОРЦ,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СОРЦ Иветта Забелина.

Тяжелое состояние пациента при отсутствии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й и наличи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не будет являться помехой для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СОРЦ. Определиться и разобраться со всеми этими вопросами перед переводом на 2-й этап реабилитации можно будет дистанционно в рамках телемедицин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Запустить координационный центр в медучреждении планируется до конца марта.

Также сейчас решается и ряд других важных вопросов,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улучшение доступности и качества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ациентам. Не первый год в ОРЦ проходят реабилитацию бойцы после ранений на СВО, и это также требует новых подходов в лечении. Министр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акцентировал внимание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хожд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медперсонала современным методикам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ой терапии.

— Мы сейчас работаем над тем, чтобы первый и второй этапы реабилитации происходил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и непрерывно, для этого отработае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ежду все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Будет создан единый регистр, в котором будут содержаться данные о пациентах, у которых есть показания к реабилитации, отражены заболевания, препятствующие этому процессу. И, конечно, медперсонал должен владеть всеми необходимыми инструментами, чтобы помочь человеку встать на ноги. Сотрудников, которые не владеют нужными навыками, ОРЦ направит на учебу,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Совсем скоро у сахалинцев появится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пройт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е лечени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ОРЦ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корпуса. Этой весной от откроется и начнет принимать пациентов.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нем начнет функционировать отделение для пациентов с заболеваниями центральной нервной системы.

Наталья Куприна вступила в должность мэр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Наталья Куприна вступила в должность мэр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районного уровня,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состоялась в Корсакове в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ом центре «Океан».

Наталья Куприна имеет большой опыт работы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коммунальной сферы. С 2015 года трудилась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нимала должность первого вице-мэра. В 2020 году возглавила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17 марта Собрани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збрало Наталью Куприну мэром. Она получила поддержку всех 19 депутатов,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х на заседании.

— Наталья Юрьевна, от имени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от себя лично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вступлением в новую должность. Вы неоднократно доказали, что благодаря своему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у, управленческому опыту и лидерским качествам способны успешно решать самые сложные задачи. Уверен, и в этот раз Вы справитесь на «отлично». Помнит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готово оказать необходимую поддержку начинаниям, нацеленным на развити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переди много работы. Идет модернизация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орского порта, активно строится жилье. Люди ждут от вас грамотных и решительных действий. Необходимо завершить газификацию домовладений и перевод угольных котельных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Продолжить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Сделать район комфортной территорией. Желаю Вам, Наталья Юрьев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всех ветвей власти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овых успехов в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е на благо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в интерес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всей нашей великой страны!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На сцене большого зала КДЦ «Океан» Наталья Куприна, положив правую руку на Устав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принесла присягу.

— Я, Наталья Юрьевна Куприна, вступая в должность мэр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торжественно обещаю справедливо и беспристрастно осуществля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е мне полномочия, честно и добросовестно исполнять свои обязанности, прилагая все свои силы и способности на благо жителей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 произнесла новый мэр.

По окончании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Наталья Куприна рассказала о своих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на намерена занять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м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повышением качества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уделить внимание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орского порта, развитию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재외동포청,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발표... 모국 기여 알린다

대한민국 발전·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한 인물 발굴·홍보 첫 '이달의 재외동포'에 제주 관광개발의 선구자 김평진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발표한다.

광복 이전 독립운동 시기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경제, 문화, 사회, 과학 등 각 분야에서 모국과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재외동포의 활동을 신문, 방송, SNS 등을 통해 홍보해 국민에게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자산'임을 인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인물 선정을 위해 전 세계 동포단체의 추천과 언론, 교육, 경제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외동포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의

재외동포'를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첫번째 '이달의 재외동포'로는 모국과 제주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재외동포 기업인 김평진(金坪珍, 1926~2007년) 전 재일제주개발협회가장이 선정됐다.

제주 출신인 김평진은 남다른 애향심으로 제주도 내 최초의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등 제주 관광 산업 발전에 기틀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1964년, 제주도 최초의 현대식 관광호텔인 제주관광호텔(현재 하니크라온호텔)을 건립하면서 본격적인 관광 인프라 조성에 나섰다. 이후 서귀포관광호텔과 허니문하우스를 연이어 오픈하면서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제주도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호텔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투자는 제주 관광 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됐다.

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1966년, 경영난으로 폐교 위기에 처해 있던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해 여성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그의 지원으로 제주여자학원은 제주 지역의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1981년 재일한국교육재단 고문으로 활동하며 재외동포 2세대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사와 국가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1977년 제주신문사(현재 제주일보)의 회장으로 취임하며 제주도의 언론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섰다. 그는 신문사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언론 기관으로 발전시키며, 제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일본에서 여러 기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자본을 형성한 그는 수익을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교육사업, 사회사업 등에 투자했다. 1982년에는 재일한국인상공연합회 회장을 맡아 한국과 일본 간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 제주도의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해 신종 감귤 묘목을 보급하고, 제주 농민들을 일본으로 초청해 선진 농업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의 이러한 공헌을 높이 평가해 우리 정부는 1981년 국민훈장 모란장, 198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을 수여한 바 있다.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는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해방 후 조국 근대화, IMF 외환위기 극복 등에 있어 막중한 역할을 했다"며,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을 통해 그들의 공로를 널리 알려 모국과 동포사회 간 유대감을 높이고,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오사카 엑스포' 4월13일 개막,158개국 2820만명 참가

10월까지 6개월간 인공섬 유메시마에서 개최

KOTRA, 3502㎡ 규모 한국관 운영...AI, 신재생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소개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엑스포(Expo 2025 Osaka, Kansai, Japan)가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을 주제로, 오는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개월간 오사카 서쪽의 인공섬 유메시마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사카엑스포에는 전세계 158개국에서 2820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엑스포의 주제인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방식'을 지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해결책을 제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른 소주제인 ① Saving Lives ② Empowering Lives ③ Connecting Lives 중에서 한 가지를 참가국이 선택해서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Connecting Lives'를 소주제로 택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참여로 사회를 건설하고 풍요롭게 하는 의미로 ▲파트너십과 협업 ▲ICT기술을 통한 발전된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기반 사회가 요 키워드다.

이번 엑스포의 콘셉트는 '미래사회의 실험장(People's Living Lab)'으로 ▲전시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세계 80억 명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며 ▲엑스포 개최 전부터, 전 세계의 과제나 솔루션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류 공통의 과제해결을 위해 첨단기술 등 세계의 지혜를 모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 발신하는 장이 되자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4월 오사카 엑스포 개막을 1개월여 앞두고, 한국관을 방문해 개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55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오사카 엑스포 참가를 통해 1970년 대비 성장한 한국을 홍보하고,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상호협력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 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오사카엑스포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With Hearts)'(부제 Connecting Hearts, Lives in Bloom(진심을 이어 꽃 피우는 생명)라는 주제로, 전통·자연·기술·문화를 융합해 미래 사회에 대한 한국의 진심을 전달한다. 총 3501.82㎡ 대형부지에 위치한 한국관은 전면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특징으로, 지난 12월 27일 외관 건축과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오는 4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내장공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관은 한산모시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미디어 파사드의 현대적인 디지털 기술을 결

합한 공간연출과 함께 총 3개의 전시관(954.99㎡)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에서는 ▲AI ▲신재생에너지 ▲미래 모빌리티를 소개하며, 한국의 미래 기술과 지속 가능한 사회 비전을 담는다.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로, 한국관은 양국의 문화·경제·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의 첨단기술과 문화, 미래 비전을 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다.

강경성 KOTRA 사장(한국관 정부대표)은 "한국관은 한국이 가진 미래 사회에 대한 진심을 전하고, 선도적인 한국의 기술력과 비전을 세계와 공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과 무역·투자 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인천공항 등 '다자녀 가구' 우선출국 '패스트트랙' 도입

제주·김해·김포 등 6월까지 도입, 3자녀 이상 대상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정부가 인천공항을 비롯해 제주·김해·김포공항을 대상으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오는 6월까지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해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Tech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 등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바이오·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000억 원 규모의 범부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등 기술투

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먼저 5대 중점 Age-Tech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연간 3900억 원(추정)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가칭) Age-Tech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내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기술을 융합해 Age-Tech로 고도화하는 3000억 원 규모의 '(가칭)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한다.

Age-Tech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성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아울러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

려운 Age-Tech 등 사회서비스 분야 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지속 운영한다.

5대 중점 Age-Tech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 완화·실증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임상연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노인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관절염 등 여타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자가유래 줄기세포 등의 배양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치료사례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선행 임상연구 없이도 임상치료가 가능하도록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

로 조정한다.

특히 본인이 동의하면 의료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정보를 제3자인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 생산에 활용할 수 있게 의료분야에 대해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자녀 가구 등을 우대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나 관행을 꾸준히 고쳐나갈 것"이라며 "남아 있는 결혼페널티 관련된 부분은 주거분야 외에도 세제·금융·복지 등 여타 분야에서도 계속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 밝혔다.

그러면서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Age-Tech 육성과 관련해 민관 얼라이언스 구축을 지원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주 북방소수 민족 원주민 아동·청소년 축제 개최

〈전통의 계승자〉 제7회 북방소수민족원주민 아동·청소년 예술창작축제에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노글리키, 포로나이스크, 오하, 티몹스코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등 6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술단들이 합류해 참여한다. 이 행사는 하바롭스크 변경의 손님들도 참석하는 가운데 3월 21일(금)부터 24일(월)까지 개최된다고 사할린주 문화부가 전했다.

'라두가(무지개)'민속문화센터에서는 3월 22일(토)에 경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소년 장인들과 예술단들이 공연하고, 3월 23일(일)에는 갈라콘서트와 더불어 우승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아동·청소년 축제의 참가자들과 방문객들은 활동교실과 연기력 및 북방 가무에 따른 강습, 응용 및 장식미술의 창작교실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문화·오락프로그램과 함께 청소년 화가들의 작품과 북방소수민족원주민의 수공예 장인들의 작품 전시회도 열린다. 노위알렉산드롭스크 '라두가'민속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으며 추가 자세한 정보는 전화(8-914-763-06-11, 8(4242)39-40-74.)로 문의할 수 있다.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юнош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творчества КМНС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VII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юнош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Наследники традиций» объединит коллективы из шест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кругов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Ноглик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Охин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и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же мероприятие с 21 по 24 марта посетят гости из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Юные мастера и ансамбли выступят в рамках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ы 22 марта в Центре народной культуры «Радуга». Гала-концерт пройдет 23 марта, тогда же наградят победителей.

Участников и посетителей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жд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тренинги по актерскому мастерству и северной хореографии, творческие лаборатории по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у искусству. Помимо культурно-досуговой программы, проведут также выставку работ юных художников и мастеро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Вход на мероприятия в ЦНК «Радуга»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бесплатный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телефонам: 8-914-763-06-11, 8(4242)39-40-74.

사할린의 연금 수급자, 1백만 루블리 로또에 당첨

사할린의 연금 수급자 미하일 웰리코레드차닌이 전 러시아 국가복권 공식발행사인 '스토로토'가 배포하는 <러시아 로또>에서 1백만 루블리에 당첨되었다. 조국수호자의 날을 즈음하여 열린 1619회 복권추첨에서 미하일에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복권사 측이 전했다.

당첨자의 말에 따르면 그날 '멀티스타브카(복권 여러 장을 무작위로 한 번에 구매)'기능을 이용해 '스토로토' 휴대전화 앱에서 복권을 구매했다. 그는 이때 행운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맞았다. 많은 복권에서 선택된 숫자들 중에는 그의 행운의 숫자는 7이었다. 추첨은 미하일의 예감에 적중했고, 소원하던 1백만 루블리가 그에게 주어졌다.

"승리가 다가오는 느낌이 강했다. 그래도 100만 루블리에 당첨될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그날 길에서 마주친 나의 행운의 숫자 7은 승리가 이뤄질 거라는 확신을 준 것 같다."고 미하일은 소감을 전했다.

우승에 대한 소식을 처음엔 미하일의 아내도 믿지 않았지만 당첨자는 '우리가 당첨된다!' 프로그램 녹화 영상을 틀고, 화면에서 자신의 복권번호를 보았을 때 모든 의심은 사라졌고,

부부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고 한다. 항공 분야의 고위직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미하일은 지금 연금 수급자로서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는 수영과 사격, 스키를 즐기며 지내고 있고, 당침점은 다가오는 그의 기념일에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 이제 미하일은 근동 국가들로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Пенсионер с Сахалина выиграл миллион рублей в лотерею

Пенсионер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ихаил Великоредчанин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крупного выигрыша в 1 млн рублей в «Русском лото», распространяемом «Столото» — официальным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ем всеросси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лотерей. Удача улыбнулась Михаилу в 1619-м тираже, приуроченном ко Дню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лотереи.

По словам победителя, в день покупки билетов в мобильном приложении «Столото»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функции «Мультиставка», он почувствовал приближение удачи. Интуиция не подвела — среди выбранных чисел во многих билетах оказалась его счастливая цифра семь. Розыгрыш подтвердил предчувствие Михаила, принеся ему заветный миллион.

«Ощущение приближающейся победы было сильным, но все равно было неожиданно выиграть миллион, — делится эмоциями Михаил. — Моя счастливая семерка, встречающаяся на пути в тот день, будто служила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что победа произойдет».

Победной новости сначала не поверила супруга Михаила. Однако все сомнения развеялись, когда победитель включил запись эфира программы «У нас выигрывают!» и показал номер своего билета на экране. Радости супругов не было предела.

Михаил, имеющий за плечами долгий опыт работы на руководящей должности в аэропортовой сфере, сейчас на пенсии ведет активный образ жизни. Он увлекается плаванием, стрельбой и горнолыжным спортом. Выигранные деньги станут прекрасным подарком к приближающемуся юбилею победителя — Михаил планирует отправиться в морской круиз по странам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